

내만의 해역별 해저퇴적물중의 와편모조 시스템 군집 특성

김형신, Matsuoka Kazumi*, 정민민**, 윤양호, 박종식

여수대학교 해양학과, *일본 나가사키대학,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서론

내만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더욱이 그 깊이가 비교적 얕으며, 영양염의 주요 공급원으로는 하천 유입으로 인한 공급과 底泥로부터의 공급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外海와는 다른 내만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생물생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쉽게 부영양화해역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내만의 각 해역별 해저 퇴적물중의 와편모조 시스템 군집 특성이 내만의 수질 평가방법으로서 활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이용되어진 해저 퇴적물은 전형적인 내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오무라만(大村灣)에서 채취하였다. 즉 오무라만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수심이 가장 깊은곳(St. 1)과 비교대상으로 오무라만의 가장 안쪽의 한 정점(St.2)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퇴적물의 표층부(0~1cm) 시료를 대상으로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와편모조 시스템을 관찰 및 계수하였으며, 침강법(피펫법)을 이용한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요약

입도분석 결과 St. 1에서는 점토성분이 81%이고 실트성분이 18%로, 중앙입경치 ($Md \phi$)는 10.3ϕ 를 나타내어 퇴적물 구성 입자가 아주 미세한 점토성분의 저질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St. 2에서는 점토성분이 74%, 실트성분이 25%로, 중앙입경치는 9.1ϕ 를 나타내어 만 중앙부인 St. 1에 비해 실트성분의 비율이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가막만에서의 입도분석 결과(박, 2002)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오무라만의 두 정점에서는 독립영양형종인 Gonyaulacales 目의 *Spiniferites* 屬, *Protoceratium* 屬, *Lingulodinium* 屬, *Tuberculodinium* 屬, Peridiniales 目의 *Scrippsiella* 屬, Gymnodiniales 目의 *Gymnodinium* 屬, *Pheopolykrikos hartmannii* (Zimmermann) Matsuoka and Fukuyo 등과, Peridiniales 目의 *Brigantedinium* 屬, *Selenopemphix* 屬, *Stelladinium* 屬, *Votadinium* 屬, *Protoperidinium* 屬, *Xandarodinium* 屬, *Diplopsalis* 屬, *Diplopelta* 屬, *Dubridinium* 屬, Gymnodiniales 目의 *Polykrikos* 屬 등의 종속영양형종 와편모조 시스템이 관찰되었다. 이를 종은 이제까지 Matsuoka(1984)와 小林 등(1986)

에 의해 보고되었던 일본 연안의 표층 퇴적물에서 출현하는 종류와 거의 동일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진해만(Lee and Matsuoka, 1994), 마산만(Lee and Yoo, 1991) 및 가막만(이 등, 1999; 박, 2002)등지에서 출현하는 시스템 종류와 거의 동일하였다.

시스템 군집 특성을 보면 만중앙부인 St. 1에서는 광합성을 통해 세포증식을 행하는 독립영양형종의 시스템이 전체 출현종의 66.4%를 차지하고, 이외는 달리 박테리아 및 규조류, 와편모조류 등과 같은 다른 미세조류를 먹이로서 섭취하면서 증식하는 종속영양형종의 시스템은 33.6%로 독립영양형종 시스템의 약 1/2정도의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그러나, 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St. 2에서는 St. 1과는 정반대의 출현양상을 보였다. 즉, 독립영양형종의 시스템은 36.2%의 출현량을, 그리고 종속영양형종 시스템은 63.8%의 출현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박(2002)에 의한 가막만에서의 시스템 출현동향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막만의 만중앙부 해역에서는 독립영양형종 시스템이 46.1%를, 종속영양형종 시스템이 53.9%를 차지하였으며, 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해역에서는 독립영양형종 시스템이 18.4%, 종속영양형종 시스템이 81.6%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내만해역 내에서도 만 안쪽 해역에서는 만 중앙해역과 달리 종속영양형종 시스템의 출현량이 독립영양형종 시스템 출현량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 논의되어지고 있는 퇴적물중에 포함되어 있는 와편모조류 시스템 군집조성의 특성을 그 와편모조 시스템이 퇴적되어질 당시의 해양환경을 추정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Kim and Matsuoka, 1998; Matsuoka and Kim, 1999; Matsuoka, 1999)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내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오무라만은 물론 우리나라의 가막만(박, 2002)의 경우, 만 내에서도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영향을 좀더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고, 만 입구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외해수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수유동이 거의 없는 만 안쪽해역은 이러한 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만 중앙해역에 비해 비교적 부영양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내만해역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내만 해역의 와편모조 시스템 군집 특성은 그 해역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참고문헌

- Kim, H.-S. and Matsuoka, K., 1998. Process of eutrophication estimated by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in Omura Bay, Kyushu, West Japan. *Bull. Plankton Soc. Japan*, 45: 133-147.
- Lee, J.-B. and Matsuoka, K., 1994.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cysts from surface sediments in southern Korean waters. Proc. 2nd Int'l. Symp. Mar. Sci. Exploitation of Marine Resources. Mar. Res. Inst. Cheju Nat. Univ., pp. 1-20.
- Lee, J.-B. and Yoo, K.-I., 1991. Distribution of dinoflagellate cysts in Masan Bay, Korea. *J.*